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원금보장 연금 수요 크게 증가

- 2009년 2/4분기 미국 자산연계형 연금(Fixed Index annuity)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21.2%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실적으로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어드벤처지 그룹(Advantage Group Associate)은 발표함.
 - 자산연계형 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주식시장 활황기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 상품임.
 - 자산연계형 연금 판매가 큰 폭 증가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변액연금, 주식형 상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연금 소비자들의 관심이 안정성과 보장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함.
- 특히 경기가 어렵고 보험사들의 자본금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성장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함.
 - 최근 각 보험사들은 자본금 보전을 위해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모집인수를 축소하고 있으며 중개회사와의 제휴를 철회하는 등 마케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.
 - 또한 자산연계형 연금 상품이 작년 333개에서 올해 266개로 줄고, 자산연계형 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작년 59개 사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.
- 회사별로는 아비바(Aviva)가 자산연계형 연금 시장의 20%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, 상품별로는 알리안츠(Allianz)의 “MasterDex X”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남.
 - 한편 인덱스 생명보험 판매 또한 전년대비 3%, 전분기대비 26% 증가하면서 1억 3,240억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하였으며, 자산연계형 생명보험 시장에서도 아비바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
(Insurance News Net, 8/17 등)